우암학원 창학69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08호 1판 (음력 4월 19일)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세계 100여개 나라 물 합쳐 '빛의 분수'로 솟구친다

GWANGJU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D-50 미리 보는 개막식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개회식 카운트다운 시작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돔 개회식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무대
참가국 입장·개회선언 등 공식행사
폐회식은 남도의 문화예술 펼쳐 광주시민 700여명 대거 출연

지구촌 수영 축제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지난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렸던 하계유니버시아드처럼 광주시민들의 역량과 자발적인 참여속에 성공 대회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개막식에는 어린이와 대학생, 예술인 등 광주시민들이 대거 출연진으로 참여해 대회 시작부터 시민들이 무대를 만들어간다.

개회식은 7월 12일 오후 8시부터 1시간40분에 걸쳐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700여 명의 출연진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다.

개회식을 장식할 공연 무대에는 광주 무용가 등 예술인들과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오르고,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애국가와 남도 전통가락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개회식 주제는 '빛의 분수'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민주화 성지인 광주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빛'은 광주를 상징한다.

개회식 카운트다운은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시작한다.

광주의 어린이들이 세계 100여개국에서 가져온 물을 분수대에 붓자 하나가 된 물이 높이 솟구쳐 오른다. 민주·평화의 정신을 품고 하나의 물결로 솟구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광주여대 체육관과 옛 전남도청 앞 5·18광장 분수대를 이원 중계하는 영상을 통해 이 장면을 보게 된다.

개회식이 펼쳐지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돔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실내공간이다. 광주와 남도의 수많은 문화자산, 입체적인 영상과 플라잉 등 특수효과로 '물'의 신비함과 자유로움, '빛'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연출할 계획이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50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에 건설 중인 하이다이빙 경기장 수조에 물이 채워지고, 관람석에도 'GWANG JU 2019'라는 문구가 새겨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남도 민요와 춤, 물과 빛의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생명의 경이로운 모습과 문명의 흥망을 표현한다. 여기에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함께 어우러진다.

공연이 끝나면 참가국기 입장·환영사·대회사·개회선언·대회기 입장 및 게양, 선수·심판·코치 대표선서 등 공식행사가 이어지면서 지구촌 수영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폐회식은 7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아름다운 순환'을 주제로 펼쳐진다.

폐회식장은 정철의 '성산별곡' 속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하는 상상의 공간이 되고, 수영대회의 물의 흐름과 아름다운 삶의 순환을 남도의 문화예술로 표현한다.

국악과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 등을 통해 남도의 풍경과 남도 특유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하며 광주시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옴니버스 극으로 연출된다.

개폐회식을 맡은 윤정섭 총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은 "지구의 생명과 인류문명을 품은 '물'을 주된 소재로, 광주의 평화 정신과 남도의 문화예술을 담고자 했다"며 "광주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평화 성지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중심지인 광주의 이미지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양치기 소년' 한빛원전

운전경력 20년차 발전팀장 제어봉 조작 말 바꾸기에 황당 해명까지
감시기구 관계자 "이정도로 위험해 질줄은 몰랐다는 해명 납득 안 돼"

일부 원자력전문가들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1986년)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한 '저출력 상태에서의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건' 당시 원전 운전에 참여했던 작업자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증언을 번복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시험운전을 총괄했던 발전팀장(원자로조종사 감독 면허 보유자)은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달려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원자로 출력 급상승을 부른 제어봉 조작을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정비직원이 내 지시 없이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직원은 "면허보유자인 발전팀장의 지시를 받고 제어봉을 인출했다"고 원안위에 밝혔다. 둘의 엇갈린 진술은 결국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를 불러왔다.

제어봉이 원자로 출력 통제와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인 만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는 운전원이 담당하거나, 예외적으로 원자로조종사 감독 면허 보유자의 직접적 지배 범위에서 무면허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 고위 관계자와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22일 "발전팀장이 '사실은 내가 당시 정비직원에게 제어봉 인출을 지시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개했다.

출력 급상승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13일 발전팀장 등 한수원 관계자는 "무자격 운전원이 제어봉을 과하게 인출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1일에는 "제어봉 인출(0→100스텝)에 앞서 출력 반응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출력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기존 발언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무자격 정비직원이 여러 다발의 제어봉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제어봉을 과하게 인출해서 출력 급상승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가, 이제와서는 '제어봉 인출 전 사전 출력 평가가 틀렸다. 계산 착오다'는 취지로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발전팀장이 운전 경력이 20년차 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어봉을 이정도 인출했다고 출력이 급상승하고 이정도로 위험해 질줄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만 졸업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계산없이도 누구나 위험해 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데,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여권 인사들 대거 봉하로 … 한국당 지도부·의원들은 참석 안 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여야 고위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23일 엄수된다.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추모 영상 상영과 추도사, 참배 등의 순서로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각 정당 대표, 정부와 청와대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다. 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추도식에는 당·정·청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이 봉하마을을 찾는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에선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종대·심상정·여영국 의원도 함께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의 참석 계획이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